

철학사

16 스토아주의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자, 다시 헬레니즘 철학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쾌락주의 윤리라는 측면에서 고대 키레나이코스 학파에서 시작된 에피쿠로스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과 유물론적 형이상학이 더해지면서 독특한 에피쿠로스 철학이 발전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 혁명이 피타고라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적 원인과 목적론적 과학 접근 방식을 버리게 되면서 이 철학은 근대에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과학 혁명은 물질, 물질적 원인, 효율적 원인, 자연력이라는 단순한 개념만을 남겼고, 이것이 데모크리토스가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입니다. 데모크리토스의 사상과 매우 유사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피쿠로스주의는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토아주의, 헬레니즘 시대의 회의주의, 그리고 신플라톤주의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바로 헬레니즘 시대의 네 가지 주요 철학이며, 각각의 철학은 후대 사상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철학들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스토아 철학의 뿌리에 대해 언급했듯이, 스토아 윤리의 출발점은 고대 키레나이코스 학파의 태도, 특히 외적인 것, 외적인 안락함, 외적인 고난으로부터 초연한 태도에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자 하는 단순한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죠. 저는 스토아주의로 계승된 두 가지 핵심 주제가 바로 외부 환경에 대한 초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환경에 대한 초연함 말입니다.

둘째로,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 결과적으로 스토아 철학에서 그들이 추구했던 주된 미덕, 즉 그들이 추구했던 선은 아파테이아(apatheia)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용어에서 무관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냉담함이라는 뜻이죠. 아파테이아(Apatheia).

아파테이아(Apatheia)는 문자 그대로 부정형 동사이자 명사로, 감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감정적인 동요가 없는 상태를 말하며, 여기서 초연함이란 외부 환경에 대한 감정적 초연함을 뜻합니다.

후에 스토아 철학자 중 한 명이 된 로마 노예 에픽테투스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의 주인이 어느 날 그의 다리를 사납게 비틀며 학대하자, 에픽테투스는 "다리가 부러지겠어요!" 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다리는 부러졌고, 그 후로 평생 절뚝거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신체적 상황으로부터의 초연함. 이 이야기가 사실이든 허구이든 간에, 요점을 잘 보여줍니다. 몇 년 전, 치과의사가 가학적으로 즐겨 하는 시술을 받던 중 제가 치과 의자에서 앉아 있던 때가 생각나네요.

그가 내 입에 자신의 장비를 꼭 채워 넣었을 때, 그는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물었다. 내가 킁킁거리는 소리 사이로 대답하자, 그는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적절한 신경 반응이 나타나자 "스토아 철학자라면 지금 뭐라고 할까?"라고 물었다. 바로 '무엇으로부터의 초연함'에 대한 이야기였다.

스토아 철학자가 아니라고 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유는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좋아요, 스토아 철학적인 태도라니.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 초연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최고의 선, 즉 무감정은 감정을 이성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이성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말입니다.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어쩌면 플라톤 철학에서 이미 예견된 것일 수도 있는데, 플라톤은 결국 지성이 욕망을 제어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데카르트나 스피노자와 같은 현대 철학자들에 이르러서는 감정, 즉 열정은 혼란스러운 관념이라는 주제를 다시금 다루게 됩니다.

지성, 즉 이성이 상황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그 명료한 사고는 모든 감정을 잠재웁니다. 이성은 명확한 이해를 통해 감정을 제어합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분명히 스토아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단순히 문제나 고통에 눈을 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정한 상황들을 세계 질서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자연 세계 전체에 걸쳐 작용하는 법의 법칙에 따른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이해 가능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에게 닥치는 역경이 자연 법칙의 작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결국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이성적인 거리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신의 삶을 자연과 자연 법칙에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기 위해서입니다 .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무감정이라는 개념은 자연의 질서, 즉 자연의 법칙에 맞춰 삶을 꾸려나가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 동요뿐만 아니라 도덕적 악 또한 근본적으로 자연 법칙과의 조화가 깨져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 악은 우리의 비이성적인 충동에서 비롯됩니다. 쾌락 추구나 탐욕처럼 말이죠.

불안. 두려움. 아시다시피, 이러한 충동에 따라 우리는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연에 반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자연과의 조화'와 대조를 이룹니다. 자연에 반하는 것이 곧 자연과의 조화인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 악이야말로 자연에 반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죄. 부자연스러운 것. 스토아 철학의 실천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 종교와 같았다.

'자연'이라는 용어는 대략 '신'이라는 용어와 동의어였습니다. 하지만 비인격적인 신이었죠. 일종의 범신론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일종의 범신론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자연 철학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통일된 전체입니다. 하지만 헤라클리토스의 영향으로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진 하나의 전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연과 신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방향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단순히 물질의 비활성적인 기질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수동적인 무언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존재하지만 그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않는 무언가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어떤 능동적인 존재를 암시합니다. 신은 수동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작용하고 자연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이고 하나는 능동적입니다. 능동적인 것은 당연히 이성적인 것이고, 수동적인 것은 단순히 물질성입니다.

물질적 존재는 질서정연합니다. 이제 초점은 자연의 능동적인 측면, 즉 신에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고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로고스 철학, 즉 자연에 대한 로고스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능동적인 힘은 바로 이 우주적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낙사고라스는 그것을 누스(nous), 즉 정신이라고 불렀고, 헤라클리토스는 로고스(Logos) 라고 불렀다. 스토아학파는 때때로 그것을 신 또는 섭리라고 부른다.

한편, 자연의 물질적 과정은 질서와 화염의 순환을 통해 네 가지 원소를 포함합니다. 이는 순환적인 우주론입니다. 따라서 질서정연한 과정을 지닌 자연은 일종의 결정론적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 법칙은 자연에서 작용하는 인과적인 힘입니다. 질서정연하고 균일하며 규칙적이고 이해 가능한 인과적인 힘입니다. 다른 그리스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에서도 자연의 두 가지 측면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들을 몸과 영혼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수동적이고 다른 하나는 능동적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영혼은 로고스라고도 불립니다.

네, 실제로 로고스의 씨앗과 같습니다. 로고스 스페르마티코스(Logos spermatikos)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로고스의 정자 같은 형태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의 영혼은 육체에 스며들어 질서 있는 활동과 움직임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신성한 로고스의 씨앗인 인간의 영혼은 여덟 가지 수단을 통해 작용합니다.

오감. 생식 능력. 사고력.

그리고 우리의 언어. 오감에 더해 성욕, 사고, 언어. 이 모든 것이 바로 근원적인 로고스에 의해 가능해진 생명 활동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스토아 학파가 영혼, 즉 생명력을 물질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비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죠. 그들이 자연을 신과 동일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연을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주적 로고스가 자연의 총체이고, 자연의 총체가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면, 인간의 영혼이 그 우주적 로고스의 씨앗이라면, 영혼 또한 요소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물질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즉, 로고스의 활동 중 하나인 생식에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생식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후대 신학에서 번역론(Traducianism)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와 함께 아버지에서 자식에게 전달된다는 개념. 당시 사람들은 이 개념을 간단히 말해 자식이 아버지의 정자 안에 축소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축소된 자식은 영혼과 육체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따뜻한 곳에 보관되면 유년기와 성인기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에서 이것이 바로 동물원리론(Animalculism)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영향으로 간헐적으로 유전학의 한 관점으로 자리 잡았던 동물원리론은 18세기와 그 후반에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다시 부상했고, 현대 유전학이 점차 발전하면서 점차 쇠퇴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토아 철학적 관점은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인간 영혼의 기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을 제공했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다른 교부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반철학적 견해를 제시했던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여러 면에서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특히 영혼과 영혼 전송에 대한 트라두키아니즘(Traducianism)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트라두키아니즘은 후대의 신학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일부 신학 서적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이 사상은 원래의 생물학적 기반에서 다소 벗어난 형태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간혹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물질적인 것이므로 그런 방식으로 전송되며, 초기 스토아학파는 적어도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세계 영혼, 즉 우주적 로고스와 재결합함으로써 살아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고스 철학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로고스 교리가 인식론, 즉 인간의 지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스토아학파는 유물론을 신봉하는 것으로 보아 비물질적인 초월적 형상, 즉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형상 개념 자체를 거부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양한 크기 와 복합적인 성질을 가진 개별적인 것들입니다. 모든 것은 개별적인 것들에서 비롯되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지식은 우리가 개별적인 것들에 대해 갖는 인상, 즉 감각적 인상에서 비롯됩니다.

자연의 질서정연한 인과 과정이 의식에 이러한 흔적을 남긴다. 무엇에 대한 흔적일까? 의식 자체에 대한 흔적이다. 이러한 흔적들을 제외하면 의식은 백지 상태, 즉 타블라 라사(tabula rasa)라고 불리는 상태이다. 마치 도장을 찍는 밀랍판이나 마커로 표시하는 백지처럼 말이다. 따라서 마음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이다.

이는 우리가 선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플라톤의 견해와 다릅니다. 또한 잠재적 지성에 대해 이야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도 다릅니다. 즉, 백지 상태가 아니라 잠재력으로 가득 찬 상태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스토아 학파에게 있어 우리는 감각 인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 즉 백지 상태(tabula rasa)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 인상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념을 발전시켜 나가므로, 인상은 관념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표상적 인식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즉, 마음, 즉 의식은 외부의 힘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인상이 형성되고, 이 인상이 관념의 발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들은 인상을 만들어낸 외부 대상에 대한 표상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등장하여 유물론적 형이상학과 함께 17세기와 18세기 영국 및 유럽 대륙 철학에 전해지는 표준적인 인식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두에서 데카르트의 사상을 접했을 수도 있는데, 데카르트에게는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존 로크에게 있어서 경험적 관념은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데카르트와 로크는 모두 의식의 직접 대상, 즉 즉각적인 대상이 외부 대상이나 물질적인 사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당신이 인식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인식하는 것, 즉 관념입니다. 이해 되시죠? 바로 당신의 관념입니다.

그리고 감각 인상. 그것이 바로 당신이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18세기 인식론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생각과 같은 무언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물질적인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른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지 하는 것이 오직 우리 자신의 생각뿐이라면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이 스토아 철학의 인식론에 내재되어 있다. 이 질문은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기준을 찾도록 이끌었다.

아이디어가 실제로 정확한 표현인지 확인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제시한 기준은 아이디어가 명확하고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관적인 검증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생각들. 그것들은 거부할 수 없는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아이디어들. 물론, 우리가 생각 없이 즉시 그것이 명확하고 분명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 내가 가진 이해는 정말 명확하고 분명하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의 특징입니다. 이 말이 데카르트에 대해 앞서 배웠던 내용과 비슷하게 들린다면, 맞습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관념이라는 바로 그 언어 자체가 데카르트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 있는 개념은 돌맹이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뿌리, 윤리, 그리고 자연 철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카우프먼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권의 책 중 제논과 클레안테스의 책은 기원전 467년에 시작됩니다. 제논과 클레안테스의 책은 기원전 2세기 그리스 스토아 철학 초기 시대를 대표합니다.

에픽테토스는 후기 로마 회의주의에 속했습니다. 로마 회의주의자들의 특징은, 그리고 로마 철학 전반은,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보다 훨씬 더 세계주의적인 관점을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질서라는 개념을 확장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전 세계를 세계 질서의 하나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 사상에서, 그들 중 일부는 온 세상을 로마 세계로 여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법은 바로 이러한 로고스 질서의 구현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는 후기 로마 스토아주의의 특징인데, 후기 스토아주의는 훨씬 더 인도주의적이었고, 반문화적 이거나 기성 체제에 반대하는 성향은 훨씬 덜했습니다. 확실히 초기 스토아학과나 키니코스 학파와는 확연히 달랐죠.

자, 제논의 467페이지를 보세요. 자연 법칙에 관한 주제들을 주목해 보세요.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동물의 첫 번째 충동은 자기 보존인데, 이는 자연이 동물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동물에게는 자기 보존이라는 자연 법칙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몇 줄 뒤에는 자연이 생명체를 스스로에게서 소외시킬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는 자연이 동물을 창조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그 동물을 자신에게 가깝고 소중하게 만들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물론이죠. 그게 바로 로고스적 본성입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쾌락이 동물의 첫 번째 충동의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스토아학파는 이것이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쾌락은 자연이 생존에 적합한 수단을 찾아낸 후에야 생겨나는 부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보존이 확보된 후에야 쾌락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의 중간쯤에, 동물의 경우 충동이라는 것이 추가되어, 동물들은 자신에게 맞는 먹이를 찾아 나설 수 없게 됩니다.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동물들에게 자연의 법칙은 충동의 방향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이라는 더욱 완벽한 지도력이 우리가 이성적 존재라고 부르는 존재들에게 부여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이성에 따른 삶이 비로소 자연스러운 삶이 됩니다.

이성이 충동을 조절한다. 과학적으로 그렇다는 뜻이다. 그렇다, 이성의 지식에 근거해서.

지식을 통해 충동을 다스리는 것. 이성은 감정, 열정, 충동을 지배한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서, 이것이 바로 제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즉 덕스러운 삶을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한 최초의 이유이다.

클레안테스는 덕스럽게 산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사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인 것이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짧은 문단에서는 우리 삶이 마땅히 조화를 이루어야 할 본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크리시포스, 즉 제논, 클레안테스, 크리시포스는 그리스 스토아 철학의 세 주요 인물인데, 크리시포스는 보편적 본성 과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단의 마지막 줄을 보면 개인의 본성을 덧붙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의 본성은 정념 등에 의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덕이란 조화로운 성향이며, 그 자체로 선택할 가치가 있고, 본질적으로 선하며, 어떤 외부적인 동기에 대한 희망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외적인 것에 무관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윤리는 철저히 의무론적 윤리, 즉 외부 세계에서 바라는 결과에 대한 윤리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자연법이 요구하는 것, 나의 의무에 대한 윤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윤리적 접근 방식은 나중에 더 많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열 맨 위에는 이성적인 존재가 타락하는 것은 외부적인 추구의 기만성 때문이며,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연의 시작점은 결코 왜곡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신의 룸메이트가 왜곡되었을 수도 있고, 금요일 밤에 즐기는 외적인 행위들이 왜곡되었을 수도 있지만, 자연의 질서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중앙에 있는 이 구절들을 주목해 보세요.

때 느끼는 비이성적인 희열입니다 . 물론 걸모습과 현실은 다릅니다. 쾌락은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이점일 뿐, 그 자체를 위해 선택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칼럼에서, 현명한 사람은 감정이 없고 무감각하다고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나약함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무감각이라는 용어가 악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덧붙입니다. 즉, 그는 냉혹 하고 무자비하다는 뜻입니다.

그건 무관심, 냉담함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음, 제 생각엔 그 윤리 부분이 그걸 꽤 잘 포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470페이지 다음에 나오는 자연에 관한 물리학 부분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470쪽 마지막 단락을 잘 살펴보세요. 우주에는 능동적인 원리와 수동적인 원리, 이렇게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단락을 이해하셨나요? 수동적인 원리는 실체, 즉 물질입니다.

능동적인 것은 이성, 즉 신이다. 그는 영원하며, 물질 전체에 걸쳐 여러 가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471페이지 첫 번째 열 중간쯤에, 신은 이성, 올라미, 라가스 등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과 동일하다.

태초에 그는 홀로 계셨고, 공기를 통해 물을 비롯한 모든 물질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주의 근본 원인이신 하나님은, 개개인으로서 당신의 영혼이 그러하듯, 당신 의 삶을 위한 씨앗, 즉 합리적인 계획의 씨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주의 미래 전체에 있어서도 질서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근본 원인이신 하나님은 다음 창조 단계를 위해 물질을 자신에게 맞게 변형시키는 존재로서 습기 속에 남아 계십니다. 짝이 트는 씨앗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비유가 매우 생생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전에 잔디 씨앗을 뿌렸고, 지금은 흙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점심때쯤 보니 촉촉한 흙 사이로 푸른 잔디가 돋아나는 첫 징후가 보이더라고요.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는 비유는 스토아 철학 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

신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씨앗,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당신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71페이지의 두 번째 열, 마지막 단락에서 그들의 관점은 세상이 이성과 섭리에 의해 질서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이 세상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듯이, 우리 안의 영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온 세상은 영혼과 이성을 부여받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473절, 그 맨 아래쪽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온 세상, 곧 하늘이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476절, 첫 번째 완전한 단락에서는 영혼의 여덟 부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76번 항목 첫 번째 열의 마지막 줄에서 번역이 시작됩니다. 그들에 따르면 정액은 부모와 같은 자손을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 부모가 습한 환경에서 배출한 인간의 정액은 부모에게 존재했던 것과 동일한 비율로 영혼의 일부와 섞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몸과 마음 모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고스 철학에서 말하는 자연관입니다 .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클레안테스의 제우스 찬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찬가를 번역한 사람은 킹 제임스 성경과 아마도 성공회 공동 기도서에 익숙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전 서양 기독교의 관용구를 일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번역을 보면 스토아 철학이 기독교 사상에 적어도 초기에는 왜 매력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찬송가처럼 들리네요. 찬송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오, 가장 영광스러운 신이시여,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시며, 자연의 위대한 왕이시여, 영원무궁토록 변함없으시며, 전능하신 분이시여, 당신의 공의로운 섭리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나이다. 자, 보세요, 이것은 마치 기독교 찬송가에 나올 법한 구절입니다. 제우스여, 만세! 모든 땅의 피조물들이 당신께 간구해야 하나이다.

제우스는 사용되는 이름 중 하나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넓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직 우리만이 당신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

넓은 땅 위를 방황 하는 자들아, 주의 형상을 지니고 있도다. 그렇다, 로고스 비르마티쿠스는 세상의 로고스의 형상이로다. 어디를 가든지 주의 형상을 지니고 있도다.

그 형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성입니다. 네, 스토아 철학의 영향 덕분에 초기 그리스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형상을 지니고 가나이다. 그러므로 찬양의 노래로 주의 권능을 드러내 리라 . 보라, 땅을 둘러싸고 도는 저 하늘은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주께 경배를 드린다.

없는 당신의 손 , 불타는 사역자 , 누룩 든 햇불은 양날 검을 휘두르네 . 당신의 불멸의 힘은 자연의 모든 창조물을 통해 맥동하네 . 이제, 모든 것을 관통하는 우주의 말씀의 매개체, 바로 그곳에 편재하는 로고스가 있네. 크고 작은 별들의 찬란한 빛 속에서, 하늘과 땅 속에서, 영원무궁토록 만왕의 왕이시며, 땅과 바다의 공기, 그리고 높은 하늘의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니네. 죄인의 미혹으로 인한 결과는 제외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탓하지 말지네. 아니, 당신은 굽은 것을 곧게 하시고, 혼돈을 질서로 만드시며, 당신의 눈 에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사랑스럽네. 당신은 악과 선을 조화시키시고, 모든 것을 영원토록 관통하는 하나의 말씀, 하나의 로고스가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네 .

한 마디 말이 있네, 슬프게도 악인들은 그 목소리를 경멸하고, 그들의 영혼은 선을 갈망하며, 거기에 열정이 있네, 그들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법칙 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 이성에 따라 인도받는 자들은 행복을 숭배한다 . 누가 언제 행복을 찾는가? 나머지는 이성을 잃고 온갖

죄악의 형상을 띠며 스스로를 부추긴다. 헛된 명예를 위해 열정에 사로잡혀 허무하게 명예의 명단에서 허덕이고, 또 다른 이들은 다른 열정으로 부당하게 부를 갈망하거나 욕욕에 탐닉한다. 이들은 여기저기 방황하며 영원히 선을 찾지만 악만을 만난다. 어둠에 가려진 자비로운 제우스여, 천둥구름 속에서 번개를 내리치는 당신의 자녀들을 오류의 치명적인 지배에서 구원하소서. 오류의 치명적인 지배에서, 이 사실은 알려져야 마땅하다. 오류의 치명적인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에서 어둠을 몰아내소서. 이 두 가지는 순서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류의 치명적인 영향력에서 그들의 영혼을 어둠으로부터 몰아내소서. 당신께서 그들이 지식에 이르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니, 당신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다스리시는 로고스시여. 모든 것이 의롭게 다스리시니, 우리는 당신을 공경하며 필멸의 존재로서 마땅히 노래로 당신의 업적을 끊임없이 찬양하리이다. 신들에게조차 우주의 법칙을 정당하게 숭배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술은 없으니, 우주의 로고스시여, 영원토록. 좋습니다, 스토아 철학이네요.

반응이요? 그 매력이 보이시나요? 헬레니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고대 세계 전체가 문화적, 정치적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에 자리를 내주었고, 그 제국은 그의 사후 소련처럼 분열되었으며, 결국 로마 제국에 정복당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충성심과 뿌리는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 되었고, 로마 시민권은 확장되었지만 종교적이든 아니든 역사적 뿌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혼란입니다. 그렇다면 헬레니즘 시대 사람들은 말 그대로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마음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육체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삶의 외적인 것들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과 관여로부터의 자유였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그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가 있습니다.

일종의 구원이죠. 제 생각이 이해되시나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 생각엔 곧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지금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사상의 역사는 이전 시대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사상의 발전은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수용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발전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비판적 관점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라기보다는, 고통과 쾌락에 대한 질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자기 이익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쾌락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쾌락은 사람을 속이고 유혹할 수 있죠. 왜 우리는 항상 그 말을 여성형 으로 할까요? 아마 정치적 올바름(PC) 때문에 그런 걸까요? 좋아요, 그냥 유혹자라고 합시다 .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잠깐만, 고통은 있죠. 고통이 있는 한, 어떤 불화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과식처럼 감정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스토아 철학적 태도. 지금 스토아 철학자라면 뭐라고 할까요? 치과의사의 질문 같네요. 근본적인 형이상학이 무엇인지 묻는 건가요? 로고스 교리요.

그는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선천적이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선천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마음에는 선천적인 구조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따르면 , 마음에는 선천적인 구조가 없어서 우리가 자동으로 특정 범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 가지 범주를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아니, 그런 식으로 미리 정해진 수용 인원 같은 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경험적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경험 과 인식을 수집하고 , 경험적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유사점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경험적 일반화를 하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일반화, 그리고 일반화로부터의 추론이죠. 네.

자연의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힘들이죠.

그건 후기 기계론적 과학처럼 들리네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단순한 규칙성, 즉 균일성일 뿐입니다.

질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화하는 능력과, 일반화를 통해 전체적인 질서를 파악하는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현재의 어려운 상황도 전체적인 질서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 왜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야 할까요? 보세요. 왜 내가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등등.

음, 기독교인들의 반응에 대해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은, 제가 메모해 둔 페이지를 찾고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우선 주목할 점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스토아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에픽테토스의 그 부분을 읽어드리지는 않았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

바로 그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논의 윤리 부분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초기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자신의 저서 중 일부에서 스토아학파의 도덕적 가르침을 인용하고 언급하며 칭찬합니다 . 알겠죠? 제가 말한 건 그들의 도덕적 가르침 중 일부이지, 그 가르침 의 근본적인 이론 자체를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

둘째로, 이러한 방식, 즉 신적 로고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 매우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요한복음 서문과 연결지어 설명하면서, 그들은 스토아 학파의 로고스가 자연의 로고스임을 인식 했습니다.

요한의 로고스 는 자연, 즉 창조의 로고스 입니다 .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물이 창조된 분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습니다.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연관성을 만들어냈고, 그 위에 기독교 로고스 교리를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 과정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테르툴리안은 스토아 철학의 영혼관을 받아들였습니다.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가 영지주의에 대한 반발로 스토아 철학에 매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대 영지주의는 일종의 이원론이었습니다. 물질은 악의 근원이고, 이성과 정신은 선의 근원이라고 여겼죠.

자, 보시다시피 스토아 학파는 이성, 즉 정신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성, 즉 정신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성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정돈된 물질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테르툴리안은 영지주의자들을 반박 하기 위해 스토아 학파의 유물론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물질적인 정신이나 영혼이 선할 수

있다면 다른 물질 도 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신께서 그것이 선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영지주의의 이원론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테르툴리안은 소수 의견이었죠.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 대부분은,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영지주의에 대응하여 플라톤주의적 관점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플라톤주의적 관점은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 교리를 플라톤주의에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이해 되시죠? 며칠 후에는 중기 플라톤주의 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중기 플라톤주의는 스토아 학파의 로고스 교리에 피타고라스 학파와 플라톤주의의 일부를 결합한 사상입니다. 이는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 학파가 신학과 변증학을 위한 전반적인 철학적 틀로 채택한 사상이며, 이후 신플라톤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반응은 꽤 명확합니다 . 이제 제가 여러분의 주의를 끌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으로 아테네에 갔을 때, 마르스 언덕에서 몇몇 그리스 철학자들을 만났고 그들 중 적어도 일부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바울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매우 종교적이십니다. 네, 스토아 철학을 따르시는군요. 킹 제임스는 '미신적' 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모든 종류의 미신에 반대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의 입맛에 맞았을 겁니다.

모든 두려움 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실적인 물질주의를 원했어요 . 하지만 그의 소개글 자체가 관심을 끌고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의도죠. 제가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숭배하는 물건들을 살펴보니, 알 수 없는 신에게 바치는 글귀가 새겨진 제단을 발견했습니다.

자, 알 수 없는 신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토아학파처럼 지식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무지는 문제의 근원이니까요. 알 수 없는 신.

그러므로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존재로 숭배하는 것을 나는 당신들에게 선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시며, 스토아 철학자라면 누구나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만든 신전에 거하시지 않으며, 종교적 미신을 배격한 에피쿠로스 학파 역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마치 무언가가 필요하신 것처럼 인간의 손길에 의해 섬겨지실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호흡, 그것이 바로 라고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그러니까 그는 동시에 두 가지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존재도 아니며,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창조하여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라고스.

로마 시대 문헌에 기록된 모든 민족은 하나의 도시 라고스 때문에 세계 시민권을 이야기했습니다. 정해진 거주 기간과 경계를 가진 질서 있는 창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예언자들 중 몇몇이 말했듯이, 우리는 그분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플리니우스의 제우스 찬가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저는 스토아 학파의 시인 클레안테스의 제우스 찬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처럼 인간의 예술과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형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바로 이 점을 반기는군요. 하나님께서는 무지의 시대를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스토아학파는 다가올 소멸의 순환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림살이로 부활시킴으로써 그 순환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일단은 미뤄두었습니다. 어떤 그리스인이 부활한 몸을 원하겠습니까? 스토아학파에게는 초연한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학파는 내세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바울은 스토아 철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알았을까요? 타르수스는 1세기 스토아 철학의 주요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사울은 도시에서 자라면서 스토아주의를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험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까요 ?

마르스 언덕에서의 설교는 신약 성경 저자나 주석가들에 의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만 알기로 결심하고 지식인들과의 교류를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는 두 종류의 청중을 대상으로 글을 썼습니다. 아테네에는 지식인 청중이 있었죠.

그는 마스 힐에 올라갔는데, 오르막길이 꽤 가팔랐다. 그는 그곳에 도착하면 무엇을 얻게 될지 알고 있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의 사창가를 방문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도시의 도덕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다른 청중, 두 개의 다른 강조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바울의 답변은 매우 명확하고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그의 전략은 스토아주의와 에피쿠로스주의에서 발견한 진리의 조각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른 맥락으로 재구성하여 진정한 맥락으로 되돌리는 것이었죠. 바로 이것이 훗날 유스티누스 순교자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말할 내용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모든 진리는 어디에서 발견되든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이러한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원래의 전체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